2007 전망과 트렌드

③ 가사노동 아웃소싱 붐

광주 신세계 식품관 'HMR'코너에서 주부들이 줄지어 반(半)조리 식품을 구입하고 있다. 과거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가사 노동은 이제 '아웃소싱'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집안일 해방…더 커진 여성파워

半조리 식품에 가정용 로봇 등장
청소·요리서 육아까지 부담 덜어
사회참여 크게 늘며 영향력 확대

청소, 빨래, 요리, 육아, 가계부 정리….

매일 해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 가사 노동이다. 가정생활의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허드렛일'이라고 무시당하기 일쑤인 일이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주부들은 '허드렛일'을 모두 직접 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사 노동을 '외부 조달' 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상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조리된 음식을 매장을 내놓고 있다. 주부들은 음식을 가스레인지로 한 번 데우기만 하면 식사 준비가 끝난다.

광주 신세계 식품관은 최근 'HMR'(Home Meal Replacement· 대체 가정 음식)코너를 개설, 운영중이다. 이 코너는 립바베큐·립스테이크·수제소시지·오삼불고기·돼지등갈비·연어·장어 등을 반(半)조리 식품 형태로 판다. 현재 'HMR'의 판매량은 전체 식품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가량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 롯데백화점 식품관 역시 'HMR'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싱글족과 직장여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이제는 '아웃소싱'(outsourcing)에 의존할 수 있다. 예전의 엄마들은 자녀가 학교 갈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집에서 하루종일 돌봐야 했다. 유치원에 보내더라도 길어야 취학 직전 1년이었다.

요즘의 엄마들은 아이가 만 4세가 되면 유치원에 입학시킨다. 대부분의 유치원이 3년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돌이 지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도 많다. 광주에는 현재 어린이집이 1천96곳(지난해 6월말 기준), 유치원은 225곳(공립 101곳·사립 124곳)에 달한다.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분말 인스턴트가 아닌 '맞춤형 조리 이유식'을 배달해주는 업체도 있다. 엄마들은 이유식을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된다.

집안 관리를 맡아주는 서비스도 다양하다. '빨래방'은 세탁기가 덜어준 주부의 부담을 더욱 경감시켰다. 1회용 살균행주가 등장해 행주를 삶을 필요가 없어졌다. '스팀청소기'는 엎드려 걸레질하는 수고를 덜었다. 전문 청소장비와 약품으로 싱크대, 화장실, 베란다 유리 등을 청소해주는 곳도 생겼다.

가사 노동 '아웃소싱'은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함께 수요가 크게 늘었다. 광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수는 ▲2004년 26만8천400명(47.5%) ▲2005년 27만8천400명(48.5%) ▲지난해 11월 말 현재 28만200명(48.4%)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조만간 가정에는 집안 일을 도맡아 하는 로봇이 보급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가정용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누보(Nuvo·프랑스어로 '새롭다'라는 뜻)'를 시판하고 있다. 재료를 넣고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요리를 만들어 주는 기계도 머지않아 발명될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박미라 근로감독관은 "가사노동이 여성들의 전유물이라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면서 "사회가 가사 노동을 흡수하는 형태로 점차 진화 중"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송원학원 땅 주거용지 되나

도시계획 변경 신청…철거작업 4월 완료

광주시 서구 광천동 옛 송원학원 부지 2만5천여평은 과연 주거용지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송원학원이 지난해 12월19일 '서구 광천동 199-1번지 옛 학교부지 2만5천800여평에 대한 학교시설 지구를 폐지해달라'는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해왔다. 도시계획변경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공개열람 되고 의회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말 결정될 전망이다. 송원학원 옛 학교부지는 본래 제2종 일반주거용지였기 때문에 학교시설지구만 폐지되면 자동으로 토지용도가 환원된다.

송원학원은 이어 지난 3일 옛 학교부지 내 모든 건물에 대한 멸실신고와 철거를 광주시 서구청에 신청했다. 철거대상 건물은 송원대학 건물 5개 동 등 총 13개 동, 연면적 1만5천900여평에 달한다. 철거작업은 오는 4월 25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2005년 6월 광주지역 건설사인 호반씨엠이 옛 학교부지를 750억원에 사들인 점에 주목하며, 만약 도시계획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고층 아파트·병원·호텔·쇼핑센터 등이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옛 학교부지의 값어치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옛 학교부지는 인근에 버스종합터미널, 80m 도로, 상무지구 등 주변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어 토지이용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송원학원은 남구 송하동으로 학교이전을 추진, 지난 2003년 송원고를 시작으로 2004년 송원여고, 2006년 10월 유치원·여상고·대학, 2006년 12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두 옮겼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실업계고 명칭 '전문계고'로

올해부터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이 전문계 고등학교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의 직업분야 고등학교 계열 명칭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하기로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실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학생, 학부모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특성화계 고교'와 '전문계 고교'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왔다.

교육부 김종관 과학실업교육정책과장은 "의특성화계고는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와 명칭이 혼동된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계고로 확정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기타계 고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로 분류돼 있는 고등학교 분류 체계가 일반계 고교, 전문계 고교, 기타계 고교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기타계 고교를 전문계 고교 안에 포함시켜 고등학교 분류체계를 크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보통교과 중심의 일반계 고교, 소질과 적성을 키우기 위한 전문교육 중심의 전문계 고교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전남교육청, 회화위주 외국어교육 강화

글로벌 인재 적극 육성

전남도교육청이 2007년 신년교육 시책으로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적 교육 해법 찾기'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글로벌 문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 함양을 위한 회화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집중 강화한다.

우선 체험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국제문화 이해교육을 위해 지역별 영어타운과 전남외국어연수프로그램(JLP)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등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를 꾀한다.

이밖에 '좋은 책 60권 읽기 운동'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논술교육을 통해 창의력 계발의 실질적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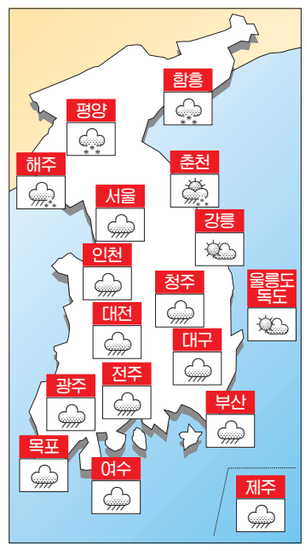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빗방울 교향곡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오겠다.

1월 5일 (음 11월 17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리고 비	2~9℃
목 포	흐리고 비	2~7℃
여 수	흐리고 비	5~9℃
완 도	흐리고 비	3~10℃
구 례	흐리고 비	-2~8℃
해 남	흐리고 비	0~10℃
장 흥	흐리고 비	0~10℃
고 흥	흐리고 비	3~9℃
순 천	흐리고 비	-2~8℃
영 광	흐리고 비	0~8℃
진 도	흐리고 비	2~9℃
전 주	흐리고 비	1~10℃
남 원	흐리고 비	-3~9℃
정 읍	흐리고 비	0~8℃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3.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4.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02:57 15:49 썰물 08:21 21:05
여수 밀물 10:28 22:27 썰물 03:50 16:33

▲해뜸 07:41 ▲해짐 17:34 ▲달뜸 19:10 ▲달짐 09:0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6(토)	7(일)	8(월)	9(화)	10(수)	11(목)
날 씨						
최저/최고	0/1	-4/1	-6/2	-6/3	-3/4	-3/3

오늘 비…내일 小寒 추위 '이름값'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小寒)이 이름 값을 할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말이자 소한인 6일 새벽부터 광주·전남에 매서운 한파(寒波)가 몰아친다"고 밝혔다.

6일 광주의 아침 기온 0도, 전남은 장성·함평·구례·순천 영하 1도, 나주·진도 0도 등이다. 하지만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떨어져, 아침 출근길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

기상청은 5일 늦은 밤을 기해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 풍랑예비특보(평균풍속 초속 14m 이상 3시간 이상 지속)를, 대흑산도·홍도에는 강풍예비특보(평균풍속 14m 또는 순간풍속 20m 이상)를 발령했다.

기온이 영하 3~7도로 떨어지면서 6일~8일 사이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추위는 최소한 11일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 심우성(53) 예보관은 "갑작스런 추위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감기 등 환절기 질병에 유의해달라"면서 "곳에 따라 강한 돌풍이 불 수도 있으니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5일에는 따뜻한 남풍이 부는 가운데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포근하겠으며,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는 5~1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올 지구 가장 뜨거운 해 될 것"

온난화·엘니뇨 겹쳐

2007년 세계는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 현상이 겹쳐 기상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해를 겪을 것이라고 영국 기상청이 4일 전망했다.

기상청은 올해 세계 평균 기온이 1998년의 최고온 기록을 깨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구는 기상관측 사상 여섯 번째로 뜨거운 해를 겪었다.

올해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961부터 1990년까지 과거 30년간의 평균 기온인 섭씨 14.0도보다 0.54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예측했다. 올해가 가장 뜨거운 해였던 1998년만큼 뜨겁거나 그보다 더 뜨거울 가능성은 60%라고 기상청은 말했다.

/연합뉴스